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한 다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인간 본성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 ①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순응해야 한다.
- ② 정해진 삶의 본질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일상적이고 확실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 ④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⑤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지복(至福)이라는 목적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다. 그런 만큼 자연법이나 인간법을 초월하여 신에 의하여 주어진 법에 따라서도 자신의 목적으로 향해질 필요가 있다.
 을: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우리의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이다. 인간 정신은 신의 빛으로 실천적 진리를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의 빛남에 감동한다.

- ① 갑: 이성에 의해서 인식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 ② 갑: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없으므로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③ 을: 신은 선과 악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 ④ 을: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 ⑤ 갑, 을: 신의 존재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3.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어찌 유독 감정에 대해서만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겠는가.
 을: 칠정과 사단이라는 감정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성에서 본연지성을 말한 것과 같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쳐서 말한 것과 같다. 기질지성은 실제로는 성이 기질 가운데 있는 것이니, 성을 둘로 나눈 것이 아니다.

- ① 갑: 이는 스스로 발(發)할 수 없지만 기는 발할 수 있다.
- ②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감정[情]이지만 그 연원이 각각 다르다.
- ③ 을: 사단은 순수한 이가 발하고 기가 따라서 발현된 성이다.
- ④ 을: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으로서 순전한 감정이다.
- ⑤ 갑, 을: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대승(大乘)의 법에는 오직 일심(一心)만이 있으니 일심 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다만, 무명(無明)이 일심을 미혹하게 하여 모든 물결을 일으키니 여섯 갈래 길[六道]에 속하여 헤매게 됨을 밝히려 한 것이다.
 을: 교(敎)를 배우는 사람은 대부분 안을 버리고 밖에서 구하려고만 하고, 반면에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밖의 대상을 잊고 안으로만 파고들기를 좋아한다. 이는 모두 하나에 집착한 것으로 두 극단에 갇힌 것이다.

- ① 갑: 일체의 이원적 분별에서 벗어나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② 갑: 계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無礙行)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교리와 경전에 의하지 않고 해탈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학과 참선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 ⑤ 갑, 을: 깨달음을 위해 계(戒), 정(定), 혜(慧)를 수행해야 한다.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생성되는 것이 아니면서 생성하는 것 그 자체인 것은 선의 이데아뿐이다. 그 생성되는 것이 본질을 갖게 되는 것도 선의 이데아에 의해서이다. 을: 생성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원리, 즉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인간의 행위 역시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것 가운데 최고선인 행복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보 기>
- ㄱ. A: 감각을 통해 사물 각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ㄴ. B: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 ㄷ. B: 이성에 따라 욕구를 절제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ㄹ. C: 좋음[善] 자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라와 도읍이 서로 공격하여 정벌하지 않고, 사람과 집안이 서로 해치지 않는 것이 천하의 손해인가? 천하의 이익인가? 그것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익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생겨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천하의 이익은 서로 사랑하고[兼愛] 서로 이롭게[交利] 하는 데서 생겨난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통치자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left: 200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div>

- ① 백성의 현실적 이로움보다 국가의 정치적 명분을 중시해야 합니다.
- ②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침략 전쟁을 허용해야 합니다.
- ③ 통치의 근본인 예악(禮樂)을 세워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 ④ 문명의 이기(利器)를 없애 무위(無爲)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 ⑤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그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가 분명 최고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이다.</p> <p>을: 사람들은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비교적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법률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위임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p>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text-align: cente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A)</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B)</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 <tr><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tr> </table> <p>[가로 열쇠]</p> <p>(A):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예) 대표적인 ○○기구에는 UN, WTO 등이 있음</p> <p>(B): 춘추 전국 시대의 모든 학자와 학파를 일컫는 말</p> <p>[세로 열쇠]</p> <p>(A): 개념</p>												(A)				(B)												
				(A)																									
	(B)																												

- ① 갑: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다.
- ② 갑: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 간의 합의에 의한 산물이다.
- ③ 을: 공공선을 해치는 사회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을 갖는다.
- ④ 을: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은 최고의 권력 기구이다.
- ⑤ 갑, 을: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갑: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왕(先王)은 그 다툼을 싫어한 까닭에 예(禮)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p> <p>을: 백성들을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규제하려고 하면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반면에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p>

<보 기>

<p>ㄱ. 갑: 하늘이 부여한 도덕규범에 따라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p> <p>ㄴ. 갑: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여 예를 실천해야 한다.</p> <p>ㄷ. 을: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따라야 한다.</p> <p>ㄹ. 갑, 을: 통치자가 덕을 갖추고 백성을 교화(教化)해야 한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p>신 이외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거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실체는 없다. 실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 양태는 실체 없이 존재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다. 양태는 오직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신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p>
--

- ① 초월적 원인인 신은 인식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다.
- ② 자유는 필연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실현된다.
- ③ 인간은 도덕규범을 지킴으로써 양태에서 실체로 변화한다.
- ④ 신은 자연의 인과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 ⑤ 참된 행복은 이성을 통해 모든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완성된다.

1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p>갑: 올바름은 더 강한 자의 편익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자기 자신을 위한 편익이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강한 자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행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행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올바르지 못함이 완벽한 올바름보다 더 이득이 된다.</p> <p>을: 올바름은 영혼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영혼의 나쁜 상태이다. 영혼이 훌륭한 사람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유능하게 해낼 수 있지만, 영혼이 나쁜 사람은 아무것도 어우러져서 해낼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의 훌륭한 상태인 올바름은 나쁜 상태인 올바르지 못함보다 더 이득이 된다.</p>
--

- ① 갑: 올바름은 현실적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다.
- ② 갑: 강자가 자신의 몫을 약자를 위해 나누는 것이 올바름이다.
- ③ 을: 올바르지 못함은 전적으로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
- ④ 을: 참된 앎을 지닌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11.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 즉 자연의 이법 [logos]을 따른 것으로 선하다.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p> <p>을: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회피의 유일한 기준은 쾌락이다. 그런데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p>
(나)	<p>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p>

<보 기>

ㄱ. A: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한가?
 ㄴ. B: 세계 시민으로서 공적인 삶에 참여해야 하는가?
 ㄷ. B: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하는가?
 ㄹ. C: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여러 사물에 연(緣)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을 공(空)이라고 말한다. 공은 가명(假名)이며, 그 공이야말로 중도(中道)이다. 연하지 않고서 발생한 사물은 아무것도 없으니, 공이 아닌 사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을: 외계(外界)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식 속에 나타난 여러 표상은 다만 식(識)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 눈에 백태가 끼면 터럭이나 두 개의 달이 보이듯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과 같다.

<보 기>

ㄱ. 갑: 공의 원리에 따라 참된 실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ㄴ. 갑: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사물의 실상(實相)을 보아야 한다.
 ㄷ. 을: 요가 수행을 통해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ㄹ. 갑, 을: 사물들은 자성(自性)이 없고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1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이성은 오직 그것만으로는 의지에 따르는 그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과 상반될 수 없다.

을: 이성은 의지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용하지는 못하다. 그러함에도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라고 본다.
 ㄴ. 을은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본다.
 ㄷ. 을은 실천 이성의 명령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본다.
 ㄹ. 갑, 을은 자연적 경향성에서 도덕적 당위가 도출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든,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궁극 목적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궁극 목적에 비추어 그것에 도움이 될 때 바람직한 것이 된다.

① 행위의 동기가 도덕적 판단의 유일한 기준임을 간과한다.
 ②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 도덕적인 것임을 간과한다.
 ③ 의무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④ 도덕적 삶을 위해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함을 간과한다.
 ⑤ 도덕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임을 간과한다.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유롭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적 자유는 단지 한 사람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자유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한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 기>

ㄱ. 갑: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ㄴ. 을: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ㄷ. 을: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다.
 ㄹ. 갑, 을: 공적인 법에 의한 간섭은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저것이며, 저것도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의 시비가 있고 이것은 이것의 시비가 있다. 과연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저것의 구별은 없는가? 이것과 저것의 상호 대립이 되지 않는 것이 도(道)의 축[樞]이다. 지인(至人)은 시비를 따지지 않고 자연의 조화 속에서 노닌다.

- ① 연기(緣起)를 깨달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좌망(坐忘)을 통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③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인의(仁義)의 덕을 실현하기 위해 선한 본성을 확충해야 한다.
- ⑤ 오감(五感)에 의한 지식으로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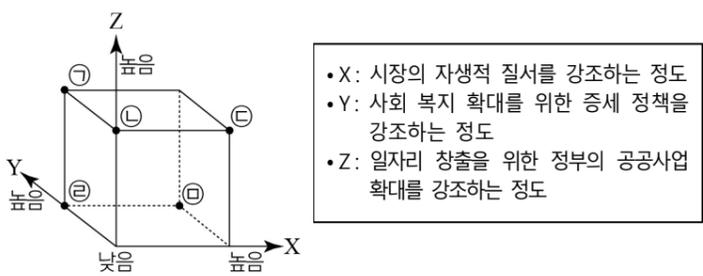
17.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효(孝), 충(忠), 신(信), 인(仁)은 모두 각자의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心]이 곧 이치[理]이다. 사리사욕에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이 곧 천리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을: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이 마음이며, 성(性)은 마음의 이치이다. 천지 사이의 이치는 사물이 생길 때 성이 되는데, 인의예지가 바로 그것이다.

- ① 갑: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발휘해 각각의 사물에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지극한 앎에 이르기 위해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 ③ 을: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여 탁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을: 앎과 행함은 서로 의지하는 것으로써 함께 나아가야 한다.
- ⑤ 갑, 을: 성인이 되기 위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18.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경쟁이 유효하도록 하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국가 주도의 경제적 통제는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
 을: 불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실질 소득과 부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의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타협을 도모하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아 그 기(器)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고,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아 그 도(道)가 천하에 우뚝하니, 이처럼 도와 기는 서로 맞닿아 있다.
 을: 서학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고,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내 안에 한울님의 성품을 지니고 기운을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정덕(正德)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 서양의 과학 기술과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을은 ㉢ 시천주(侍天主)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였고, ㉣ 신분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참된 도(道)를 실현하기 위해 성(誠)과 경(敬)을 중시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가), (나) 사회사상 중 적어도 한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공산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 체제일 뿐이며, 진정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없이 실현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로 대체하기 위해 생산의 계획화와 민주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나) 봉건 사회의 몰락으로 생겨난 현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도 계급적 모순이 폐지되지 못한 채, 두 계급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더욱 분열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계급 투쟁을 통해 낡은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 <보 기> —

㉠. 일부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허용될 수 있는가?
 ㉡. 국가와 계급은 역사적인 필연성에 따라 소멸되는가?
 ㉢. 자유로운 의회 활동에 기반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가?
 ㉣. 모든 재화가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